역대 주목받은 등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연등회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대형 장엄등과 참가자들이 직접 들고 이동하는 행렬등이 선보인다. 등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세상을 환하게 비추겠다는 바람만은 오롯이 담겼다. 감히 그 정성을 평가할 순 없지만,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통등은 물론 해마다 현대적 감각과 아이디어를 살린 개성 있는 등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상희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 연구위원의 자문을 거쳐 역대 주목받은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진=연등회보존위원회〉**

행렬등



팔모등. 우리나라에서 사용돼 온 가장 일반적인 팔각 모양의 전통등으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8가지 수행의 길인 팔정도를 상징한다. 1975년 영암 · 서옹 · 경산 스님이 팔모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동참한 모습.



T자형 연등걸이. 등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각적 효과가 탁월해 많은 사찰에서 사용한다.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축구공 모양 연등이 T자형 연등걸이에 걸려있다.



▼세월호 추모등. 2014년 연등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백색의 추모연등을 들었다.



▲북한등. 연등회보존위원회가 2014년부터 북한의 문헌 '조선공예미술연구'를 근거로 복원한 북한 전통등. 북한 등은 직선 위주의 표현으로 투박하지만 담백한 멋을 지닌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에는 연등행렬 선두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기도 했다.

장엄등



탑모양 장엄등. 1977년 청년불자들이 연꽃잎의 꽃살을 일일이 손으로 잡아 모양을 만들고 붙인 전통 장엄등. 이 장엄등에는 1만장 이상의 연꽃잎이 사용됐다.



조계사 주악비천상등. 전통 기법으로 2000년 즈음 제작됐다. 이 등은 주악비천이 서로가 마주보며 음악을 연주하는 특이한 형상으로, 역동성과 생동감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캐릭터등. 어린이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릭터를 본뜬 연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불교에 대한 친숙함도 자연스럽게 심어준다.



한마음선원 장엄등. 한마음선원은 매년 전문가급의 정교하고 화려한 장엄등을 선보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눈여겨볼 올해 등

합장 염원등.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불교행사로 시작해 어느덧 국민 축제로 자리매김한 연등회. 향후 세계로 뻗어가는 축제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합장 염원등이 올해 연등행렬의 선두를 이끌었다. ▶





대학생 불자들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차원에서 서울 · 경기 지역 22개 학교가 연등행렬에 동참했다. 올해는 가천대, 경동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방송통신대가 추가돼 26개 학교가 각 학교 마스코트가 담긴 장엄등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 실 설악 무산
기 도 관성 본수 도안 선우
주 지 일념
부 주 지 향성 무문
총 무 본일
기 획 설호
호 법 각일
사 회 서원
원 주 설원
템플스테이연수원장 선일
템플스테이연수국장 지월
무산문도문장 삼조
홍련암 기도 관진 공산 동현 원주
신 도 회 장 방양호
관 음 회 장 반순덕
바 라 밀 회 장 박상혁
문 수 회 장 양은숙
합 창 단 장 안복녀
의 상 회 장 이순애
불교대학회장 윤여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